

이진영 개인전 Jinyoung Lee Solo Exhibition

운화몽 雲花夢 unhwamong

2019. 10. 17^{thu} - 11. 2^{sat}

Opening 10. 17^{thu} 17:00

12:00 - 18:00 일, 월요일 휴무 closed on Sunday, Mon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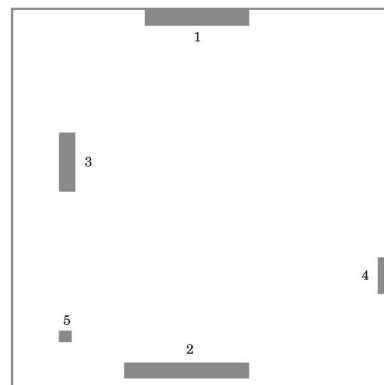
갤러리 아소 Gallery Aso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9길 40-31

40-31 Cheongsu-ro 9-gil Suseong-gu, daegu Korea

M. 010 4217 4480 E. dscho1949@dreamwiz.com

<http://blog.daum.net/galleryaso>



- 1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170.3(h) x 116.3(w) cm, 2019
- 2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198(h) x 122(w) cm, 2019
- 3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92.3(h) x 120.3(w) cm, 2019
- 4 unhwamong**
Inkjet Print on Hanji Paper, 90.3(h) x 68.8(w) cm, 2019
- 5 unhwamong**
Inkjet Print on Transparent Paper, 14(h) x 19(w) cm (3pieces),
Acrylic-plates, LED Acrylic Sheet, Iron 13.4(h) x 9.6(w) x 17(d) cm, 2019

운화몽 雲花夢 unhwamong

서문

어느 가을,
 아소(我所)에서
 나는 봄니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
 그 눈부신 슬픔을

김수경 출판 기획자 / ㈜에프북 대표

하나,
 가볍게 살겠노라, 하늘의
 구름처럼... 했던 그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구름처럼 살고 싶다, 했었습니다. 아마도
 비우는 것은 쉬운 일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채우는 것을 욕심이라
 부른다면 비우는 일은 단순히 겸손 같은
 것이라 여겼던가 봄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조금만 가지고 나머지 욕심은 내지
 않겠다며 헛된 다짐을 했었지요.
 하! 바보 같은 다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버리고
 비우는 일이라는 걸 생의 반 토막쯤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채우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허상, 진짜 욕심은 쉬
 비울 수 있다 여겼던 내 마음 같습니다.
 구름이 가벼울 것이라 누가 말해
 주었던가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저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겁고, 아프고, 눈가가
 짓무르도록 울고 난 뒤의 가벼움. 아마도
 구름은 그렇게 만들어진 찬란한 슬픔일
 것입니다.
 사진 속에 차고 앉은 구름을 봄니다.
 나는 비로소 다시, 겸허한 다짐을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구름처럼 살아
 보겠노라고. 지금부터가 진짜일
 것입니다.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 꺾어야 할 것들을 충분히 꺾었으니
 말입니다.

둘,
 나답게 피우겠노라, 저 들판의
 꽃처럼... 했던 그것

때가 되면 저절로 피우게 될 줄
 알았지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
 나는 머지 않아 꽃으로 피어 날 수 있을
 것이라 자만도 했습니다. 저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고행의 길인지를 몰랐을 때의
 욕망이었습니다. 꽃이 되겠노라 하는
 마음을 접은 지 오래입니다. 포기가 너무
 빨랐습니다. 그래도 살아지네요. 꽃이
 아닌들 어떠하리, 하면서.
 돌이켜 보니 슬픈 일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꺾어 버린 마음. 어느 한때,
 꽃이고자 했던 나의 소망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마음 어디 가고 이렇게
 잡초인 듯 살고 있느냐, 나는 나를
 나무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 몇 장의 사진들 때문에.

셋,
 잊지 않고 살겠노라, 나의 꿈이
 무엇인지를... 했던 그것

기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꿈꾸었는지. 아직 아무 것도 되지
 않아서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참 수줍었던 꿈 말입니다. 꿈을 꾸는
 일에는 키재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이가 대통령을 꿈꾼다 한들 누가 뭐란단
 말입니까. 역으로 대통령인 자가 하루
 빨리 구두 수선공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손가락질이야 하겠습니까. 높여 꾸는
 꿈이든, 낮춰 꾸는 꿈이든, 전부 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면
 그만인 거지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여다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느라,
 살아 가는 일에 연연하느라, 잊고 있었던
 마음의 말들을 다시 끄집어 낼 수
 있기를. 여기에 걸린 사진들이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만 같습니다. 흐려졌으나
 다시 선명해지는 그 어느 날의 꿈들
 때문에 지금 나는, 가슴이 뻥니다.

사진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잊었던 그것들을 다시 찾은
 기쁨 때문에

세월은 우리를 데려 갑니다. 끝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니 무작정 따라갈
 뿐입니다. 삶의 골목골목, 구비구비 삶의
 언덕들을. 허나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구름이고자 했던, 꽃이
 되고자 했던, 어떤 무엇을 꿈꾸었던
 마음의 소리를 들어 보자 하고
 싶었습니다. 살다가 만난 몇 장의
 사진들로 하여 나는 잃었던 '나'를
 되찾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참 많은 것들을 지우고 지우고 하면서
 세월을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 어느 한때, 참
 찬란했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야
 나머지의 날들이 살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진영의 사진. 흐릿하고, 아찔하고,
 서럽고, 눈물이 나고, 간혹 벽차 오르게
 하는 한 여자의 사진으로 인하여 나는
 이제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밤이라도 한 끼 사야겠습니다.

운화몽 雲花夢 unhwamong

작가 노트

세상 그 어디에
완전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나는
불완전의 순간을 찍는다

이진영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 있을 리 없다.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뿐.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으나 몰랐던 것, 다만 내가 보지 못 했던 어떤 것. 그것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나의 작업은 시작된다. 마치 구름처럼, 열린 꿈처럼, 잎을 떨구는 꽃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을 습판사진술 Wet Collodion Process 의 한 방법인 암브로타입 Ambrotype 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 작품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한다면 내가 창작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정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다. 나의 사진 이미지는 작가로서의 '상상력' 과 작품을 완성하는 '방법' 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관객에게 나의 경험을 충분히 꼭 차게 전달하려 한다.

나는 나의 해묵은 경험들을 작품에 담아 내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풍경, 인물, 대상 같은 것들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된다.

예를 들면 4x5inch의 유리 원판에 촬영하여 인화한 유리네가티브원판 Glass Plate-negative 의 네가티브 negative 사진을 다시 재촬영해 투명한화지에 4x5inch의 포지티브 Positive 필름으로 만든 뒤 여러 레이어를 겹쳐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시킨다. 이번에는 무채색이었던 이전의 작업들과 달리, 의도하지 않았던 색과 빛의 흔적들이 첨가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탄생되었다.

사진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찍거나 저절로 그렇게 완성되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곤 한다. 그럴 때마다 사진을 통해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재단한 대로 인생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조금씩 나를 낮추는 일이 곧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깨달음을 배우게 되곤 하는 것이다.

[구름, 꽃 그리고 꿈]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나 나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 이것이 찍고 싶었나 보다. 작품을 모두 완성해 놓고 서야 내 속의 진심을 발견한 것이다. 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되어서. 나의 사진들을 들여다 보는 그대의 마음에도 지나온 날, 살아 갈 날들의 이야기들이 소복하게 쌓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